

제60회 합격자 김지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졸업 예정(2024.02.)
1999년생

키워드: **상표고득점 1차 3등**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60기 변리사 시험 합격한 김지희입니다. 저는 수험 기간 초반에 합격 수기 등 정보를 접하지 않았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제 수기가 수험 기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I. 변리사 시험 진입 (진입 전(진입 시) 상황 또는 진입 동기)

아마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공대생이실텐데, 공대생 대부분은 3학년 쯤 대학원, 사기업 입사, 기타 전문직 중 어디로 진로를 정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나 제 친구들 또한 3학년 초기에 그런 고민을 시작하였고 한 친구가 변리사 준비를 같이 하자는 제의를 보내왔습니다. 대학원에 가기에는 기약 없는 세월을 버틸 자신이 없었고 사기업에 입사하기에는 이제껏 배운 전공지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비교적 공대 전공을 살리기 유리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되새겨보면, 코로나 시기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고시를 준비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III. 시기별 공부방법

1. 1차 시험 1회차 (학교 병행, 2021.02.)

처음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진입을 결심하기보다는 민법이라도 배워놓으면 살면서 도움이라도 되겠지 싶은 마음이었기에 친구를 따라 한빛 함성배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총칙과 물권 강의, 그리고 조현중 강사님의 특허 강의 정도를 들은 채로 경험 삼아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평균 60점 대로 당연히 불합격이었고 한동안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2. 1차 시험 2회차 (2021.10.~2022.02.)

다시 시험을 준비한 것은 2021년 10월 중순부터였습니다. 진입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생겼으나 이전에 듣고 복습하지 않았던 기본 개념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시간은 촉박하여 김동진 강사님의 민법 기본강의와 중급강의, 김현호 강사님의 특허 기본강

의, 박종태 변리사님의 상표 기본강의, 김웅 변리사님의 디자인 기본강의, 변상규 변리사님의 물리 기본강의, 원동신 강사님의 화학 기본 및 문제풀이 강의, 최성윤 강사님의 생물 기본강의, 박준희 강사님의 지구과학 기본 및 요약 강의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강의들을 2배속으로 하루 12시간씩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책을 읽으며 회독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인강을 여러 번 듣는 방식 혹은 중급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회독을 하였습니다. 자연과학개론은 평소 물리와 화학 수능 모의고사 검토 일을 하고 있었고 생물은 대학 때 수강을 했기 때문에 박준희 강사님께 지구과학 강의를 듣고 나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이 부분이 1차 준비를 시작한 기간이 늦었음에도 부담이 적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법 과목은 기본서와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따로 객관식 강의는 듣지 않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회독을 겸하였습니다. 실전 감각을 기르고 자연과학개론 풀이 시간에 익숙해지기 위해 응시한 모의고사에서 각각 30등과 1등을 기록하였고, 59회 1차 시험에서 94.3점(민법 97.5, 산재 97.5, 자연과학 87.5)을 기록하여 3등의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동차 (2022.03.~2022.07.)

1차 기간을 밀도 있게 보내다가 1차 시험 이후 긴장이 풀리며 슬럼프가 찾아왔고 3월과 4월에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듣는 것 이외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부터 과목별 암기 스터디와 민사소송법 목차 스터디를 잡아 강제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6월에는 실전 gs를 병행하였고, 시간이 없어 gs 자료들은 목차만 잡고 답안을 확인하며 양식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목차집을 기준으로 민사소송법 위주로 통암기를 하다보니 개괄적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하였고, 6월 이창한 교수님 실전 gs에서 거의 꼴등을 기록하던 저는 59회 2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 약 68점을 기록하며 54.77의 성적으로 소수점탈하며 동차 기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기득 (2023.03.~2023.07.)

저는 동차 기간에 제가 비교적 암기에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성격상 오래 공부할 경우 오히려 지칠 것이라고 예상하여 2022년 2학기 때는 전공과목 14학점을 들으면서 기본 전환을 하려고 하였고 겨울 방학 때 기업 인턴을 신청하여 6주간 다녀왔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쉬는 기간을 만들어버리니 자기 객관화가 되고 기득 기간을 준비할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기득 기간도 다소 촉박하게 보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께는 이 방안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3월부터 이창한 강사님의 중급강의, 박형준 강사님의 기본, 판례, 사례 강의, 실전 gs, 한경훈 강사님의 실전 gs, 김웅 강사님의 기본 및 실전 gs를 수강하며 공부하였고, 동차 때와 마찬가지로 과목별 암기 스터디를 구하여 목차집 기준 통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에 등교하여 20시에 하교하는 생활을 유지하였고, 수영 등 운동을 병행하였습니다. 현장 감각을 위해 메가 변리사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여 8등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별다른 기복 없이 기득 기간을 보내고서는 60회 2차 시험에 57.33(선택과목 디자인보호법 58.33점)점, 46등의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IV. 과목별 공부방법

1. 1차

1) 민법 (59회 1차 97.5점)

많은 분들이 진입을 민법으로 하시다보니, 공부방법을 설정하거나 복습할 시간을 안배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사건으로는 서브 교재를 쓰지 않는 강의를 추천합니다. 민법은 1차에서만 시험을 치는 과목이므로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객관식 시험을 칠 만큼만 공부하면 된다는 견해 때문이기도 하고, 산업재산을 공부하기 위한 시간 확보와 부담감 측면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1차 준비 당시에는 회독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서 김동진 강사님의 민법공방으로 기본강의와 중급강의를 모두 수강하며 인터넷 강의로 회독을 하였습니다. 복습을 위해 등교길에는 강사님이 제공하시는 암기 영상들을 들으며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렇게 12월에 중급 강의까지 완강 후 12월 말부터 강의 없이 객관식 문제집만 2회독하며 새로 알게된 개념들은 포스트잇으로 민법공방 본 책에 붙여 단권화를 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역시 책 가장 앞 페이지에 모두 정리해두고 시험 직전 그 부분을 읽고 시험에 임하였습니다.

민법은 아무래도 서술형으로 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 비중으로는 중요한 과목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사님을 정하셨으면 그 책으로 쪽 밀고 가시고, 기본서(또는 서브) 1권, 기출이 수록된 객관식 1권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산업재산권법 (59회 1차 97.5점 20/9/10)

산업재산권법(이하 산재법)은 민법에 비해 조문도 적은데다 합쳐서 40문제에 불과하므로 시간을 적게 할애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법입니다. 민사소송법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여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산재법은 개괄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전, 혹은 판례의 논리를 깨닫기 전에는 방향성 설정이 어렵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법의 경우 객관식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개념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허의 경우 1차 때 김현호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홍기석 강사님의 객관식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특허 개념을 더 깊게 공부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객관식을 통해 귀납적인 공부를 했던 것이 동차 시험에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표의 경우 박종태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강사님께서 제공하신 기출문제만 3회독 후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상표는 초반에 방향성을 가장 잡기 어려운 과목으로 꼽으시는데, 2차 시험까지 통틀어 결론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므로 판례집을 통한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판례 강의를 들으시고 3회독 정도 하시다 보면 과목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상승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김웅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강사님께서 제공하신 기출문제를 마찬가지로 3회독 하였습니다.

산재법 개념은 잘 공부하시되, 따로 사설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출제된 20개년의 기출 문제를 푸는 정도로 족하고,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3) 자연과학 (59회 1차 87.5점 9/7/9/10)

평소 물리2와 화학2 모의고사 검토 일을 하고 있던 터라 물리나 화학에 대해서는 개념 습득에 큰 문제가 없었고, 기출문제만 하루 1세트씩 풀며 감을 유지하였습니다.

생물과 지구과학은 각각 최성윤 강사님과 박준희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교재의 문

제들을 풀어보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자연과학개론은 개념을 알고 시간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구과학-생물-물리-화학 순으로 푸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가장 빠르게 푸는 순으로 정하시고 막히는 문제가 있을 경우 그냥 짚고 넘어가시는 편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화학을 풀면서 시간이 부족하여 남은 문제들은 3번으로 짚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2차

1) 민사소송법 (59회 2차 68점->60회 2차 57점)

민사소송법은 변리사 시험을 통틀어 가장 정직하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 60회 시험은 예외긴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점수가 대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오므로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기득까지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 중급강의, 사례강의, 기초gs, 실전gs를 수강하였는데, 동차때는 사실상 시간이 없어 기본강의, 기초gs, 실전gs 정도만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회독과 암기인데, 저는 암기 스터디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차 5월 초까지 기본강의 수강을 완료하고 5월 중순부터 전화 암기 스터디를 구하여 목차집만 보고 해당 목차의 쟁점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서가 사례문제를 수록한 형태로 되어있다보니 사례집을 따로 회독하지 않더라도 (동차 기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답안지 작성 방안이 자연스럽게 익혀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넘기고 다른 부분을 학습하고 돌아오니 이해가 쉽게 되었고, 6월 초에 실전 gs에서 꼴찌를 한 저는 실제 시험에서 68점의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득 기간에는 중급강의로 기본서를 재차 회독하며 개념을 정리 후 동차 때와 마찬가지로 암기 스터디를 통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례집은 답안은 쓰지 않고 목차만 작성 후 답안과 비교 후 넘어가는 형태로 1회독 정도 하였고 대부분 기본서로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요약서를 보면 불안해하는 편이라 암기노트 없이 통합 기본서로 회독을 진행하였는데 마음이 편하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Gs도 회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답안지 작성 연습을 위한 것이고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서 회독인 것 같습니다.

2) 특허법 (59회 2차 49점->60회 2차 55.33점)

저는 1차 때 특허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아 2차 기간 동안 부족한 개념을 보완하느라 시간을 꽤 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gs 답안에 적힌 목차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깨닫지 못하여 적절한 목차를 찾기 어려웠는데, 특허발명과 침해발명을 각각 확정 후 대비하는 컨셉을 이해하자 왜 많은 gs 답안이 그러한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특허는 특허법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면 기본강의와 더불어 판례강의와 사례강의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우 박형준 강사님의 사례집(상)의 기출 예시 답안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법은 사안포섭이 매우 중요한데, 강사님의 사례집을 통해 당연한 사항까지 사안포섭에 기재하며 두껍게 적는 방안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도 암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나오는 판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강약 조절을 잘하셔서 모르는 문제는 남들만큼, 아는 문제는 차별화되게 적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3) 상표법 (59회 2차 46점->60회 2차 59.66점)

상표는 판례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표의 목차 흐름은 결국 답이 정해진 판례의 논리 흐름대로 작성하여야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차에는 개연성이 없거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답안지인 판례집을 외워야 합니다. 저는 기득 때 판례집 암기 스테디를 구하여 판례집을 10분할하여 하루 30개씩 2주 1회독 속도로 회독을 지속하였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5분할하여 1주 1회독의 속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자의적인 표현 대신 판례 표현을 현출하고, 사안 포섭을 두껍게 해야 합니다. 제 경우 사안 포섭의 내용도 목차화해서(예. 등록상표/관념추출/거래실정/비교 등) 적은 것이 가독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경훈 강사님과 최지환 강사님의 강의를 모두 들었는데, 강사님마다 답안지 스타일이 꽤 다르십니다. 자신에게 맞는 목차 템플릿을 정해두시면 배점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선택과목 (59회 2차 58점->60회 2차 58.33점)

저는 선택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였는데, 디자인보호법도 정말 암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표법과 달리 단문도 암기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지만, 양이 적고 1차 시험과 호환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선택이유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하루 한 챕터씩 등하교길에 암기하는 것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바로 암기가 되지 않는다면 정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5회독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저절로 암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의 경우 까다로운 사례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 저는 김웅 강사님의 실전 gs를 목차만 잡아보고 마지막 한 회 정도 풀답안 작성한 후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5) 기타 (답안지 작성법, 회독방법, 암기방법 등)

2차를 처음 시작할 때 답안지는 대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좋은 목차는 무엇인지, 쟁점 단위란 무엇인지,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의문 사항이 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본서를 회독하고 암기를 하시면 많이 쓰지 않더라도 (당연히 양 조절과 시간 할당을 위한 연습은 필요합니다) 내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 없이 목차 잡는 연습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시간 낭비였습니다.

또한 동차 때는 과목마다 대형 강사 한 분씩만 커리큘럼을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강사님마다 포인트가 달라 동차 때는 여러 강사님의 자료를 모두 정리하려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고, 대형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여야 남들이 모두 적는 내용을 빼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V. 수험생활 일반

1. 건강관리, 멘탈관리 (슬럼프와 극복방법 등)

실질적인 1차 준비 기간이 짧았던 터라 1차 때는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동차 기간 시작과 동시에 긴장이 풀려서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어려웠고, 오래 앉아있으면서 답안지를 쓰다 보니 어깨와 손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렇게 동차 기간 시작 때 이창한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5월에 완강할 정도로 크게 슬럼프가 왔고, 어깨와 목의 통증으로 재활의학과에 다닐 만큼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정신적인 슬럼프는 스터디로 극복하였습니다. 슬럼프를 핑계로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강제성 부여를 위해 친하지 않은 분들과 과목별로 전화 또는 오프라인 암기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친한 분들과 있을 때 다소 루즈해지는 제 특성 때문인데, 이 부분은 개인 특성에 따라 맞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스터디가 4개씩이나 있다 보니 암기와 복습에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고, 암기를 통해 개괄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면서 실력과 자신감이 상승하여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슬럼프는 자세 교정(필라테스)으로 극복하였습니다. 통증 등 신체적인 슬럼프가 오면 정신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루 가용 시간 확보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는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만 하는 경우가 많고 매일같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시간 들이지 않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 통증이 크게 개선되어 기득 기간 종료까지 정형외과적 통증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득 기간부터는 아침 수영도 병행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고 체력을 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 종료 직후마다 몸 곳곳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자주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이는 수험 기간이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뒹군 오랜 기간동안(4시 이상)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느긋하고 낙천적인 성향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마음이 심란하면 잠시 산책을 하면서 반야심경을 듣고는 했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공부장소, 생활리듬 (하루 시간 관리, 스터디 등)

(1) 공부장소

1차 기간 동안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동차 기간은 독서실 1인실에서, 기득 기간은 다시 학교 도서관에서 보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남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 모습에 더 자극을 받는 유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할 경우 오프라인에서 스터디할 분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독서실 1인실에서 공부할 때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 탄식을 많이 했었고, 고립되어 있다는 의식이 강해져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호불호가 없으시다면 식사 시간이라도 타인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생각보다 반년이라는 수험 기간은 길고 중간중간 잘 쉬어 주어야 지치지 않고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시간 관리

저는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인데다 집중 가능 시간이 짧고(대신 한번 집중하면 그 안에 큰 성과를 내는 편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숙면이 필요하며 주 1회는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합격은 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겠지만 스스로를 파악하여 원칙을 세우는 일은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얼마동안 집중 가능한지, 얼마큼 자야 조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식

사는 언제 얼마만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일주일에 얼마나 쉬어야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정을 반복할 수 있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1주일, 1달, 반년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슬럼프가 오기 쉽습니다. 동차 기간 때 저는 하루에 달성하지 못할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는 으레 실패하며 자신감을 깎아먹었고, 달성하지 못한 목표들을 주말에 몰아하며 제대로 쉬지 못해 그 다음 주에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달리 10시 등교, 20시 하교, 일요일 휴식 등의 원칙을 지킨 기득 기간은 별다른 슬럼프 없이 지나갔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암기량이 많기보다는 암기한 것을 까먹지 않도록 반복하고 답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스터디

저는 스터디 덕분에 합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강제성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년 단위의 시험은 사람을 루즈하게 만들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암기스터디, 쓰기 스터디 등 필요한 스터디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스터디로 인해 개인 계획에 지장을 받는 주객전도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스터디라고 느껴지는 경우 빨리 정리하는 것이 자신과 상대를 위해 좋습니다.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절대 실례되는 일이 아니므로 무리한 스터디 일정으로 버거우신 경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개인 일정에 집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가장 고마운 사람

가장 감사드리신 분들은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수험 기간에 돌입하면서 초반에 건강이 크게 나빠지자 가족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2년간 제 생활 전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일상적인 일들에 크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취를 하면서도 공부에 큰 지장을 받지 않으시는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도와줄 가족이 근처에 있는 경우 본가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정신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 친구들과 남자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명확한 합격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시험이라 마지막까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주변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 응원이나 감정적 지지가 없었더라면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4. 시험 외적인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

진입을 하시면서, 배수의 진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향상 어쩔 수 없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러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학점을 버려도 될 것이라 여기는 분들에게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변리사 시험은 준비 이력이 경력이 되지 않는 시험이므로 만약 준비하시다 다른 길을 선택하시는 경우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설령 합격하시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성적 증명서를 중요하게 보는 사무소들이 꽤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정도를 조절하시되 복구할 수 없을 수준으로 방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성실성 평가에서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력이 되신다면 시험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 여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가점 사유가 됩니다. 제 경우 채용 과정에서 동차와 기득 기간 사이에 회사 인턴 경력이 있던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학리사가 아니신 경우 더더욱 합격 후 채용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시험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 이외 기타 요소들을 지나치게 등한시하셔서 이후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VI.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직 진입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솔직히 시험 진입을 자신 있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시험 기간에 당황하실 수도 있으며, 실력이 있다고 무조건 합격하게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더 수월하게 결과가 나오는 분야 또한 많기도 하고 설령 합격하시더라도 본인의 전공 등에 따라 기대했던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한 입장에서 단언할 수 있는 점은, 여태껏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게 될 것이며 선택받는 상황보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61기 변리사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